

# 온누리상품권 ‘현금깡’ 하면 환수... 부정유통 뿌리 뽑는다

중기부 ‘부정유통 개선방안’ 1차 5억 이상 고액매출 의심 7곳 고발 이달 말까지 의심점포 추가조사 부당이득 댄 가맹점 제한기간 확대 의심거래 단속 ‘월’ 단위로 단속



서울 동대문구 청량리종합시장에 온누리상품권 가맹 안내표지가 설치 돼 있다. /뉴스시스

중소벤처기업부가 온누리상품권 부정유통을 막기 위해 칼을 빼들었다.

우선 월평균 5억원 이상 고액매출을 기록, 상품권 부정유통이 의심되는 가맹점 7곳을 경찰에 고발하고 행정조치했다. 또 다른 6곳은 행정처분 절차를 밟고 있다.

11월 말까지 월 1억원 이상 거래 점포 347곳과 주류 소매 의심 점포 87곳에 대해서도 추가 조사를 실시해 위반사항이 적발되면 엄정 조치한다.

관련 법령을 고쳐 가맹점이 온누리상품권을 불법 매입해 부당이득을 취하면 환수할 수 있도록 한다. 가맹점 등록 제한기간을 늘리고 소상공인지원사업 참여도 제한한다. 다만 법이 통과되기까지 시간이 다소 필요해 소급적용은 불가능할 전망이다.

중소벤처기업부 원영준 소상공인정책실장은 11일 서울 여의도 중기중앙회에서 “고액매출 점포를 중심으로 온누리상품권 부정유통 문제점을 점검하고 재발 방지를 위한 ‘온누리상품권 부정유통 개선방안’을 1차로 마련했다”고 밝혔다.

중기부는 또 올해 안에 온누리상품권 운영 전반에 대한 관리체계, 제도개선, 활성화 방안 등을 담은 종합대책을 내놓을 계획이다.

중기부는 이달 1일 온누리상품권 개선 태스크포스(TF)를 출범한 바 있다. 이에 앞서 지난 10월 21일부터 30일까지 월평균 5억원 이상 고액매출로 부정유통이 의심되는 가맹점 15곳에 대한 조사도 진행했다.

이 가운데 13곳에서 부정유통 위반 사실이 확인됐다. 브로커 거래, 자전거래가 대표적이다. 행정처분이 내려진 곳은 온누리상품권을 사용할 수 없는 주류업종 등이 부당하게 가맹한 것으로 알려졌다.

중기부에 따르면 적발한 고액매출 가맹점들의 경우 대규모 거래를 한 후 취소하거나 가맹점간 자전거래 등의 방법으로 매출을 급격히 부풀려 단기간에 월별 최대 회전한도까지 늘리는 편법을 썼다.

원 실장은 “현재 소상공인시장진흥공단과 금융결제원의 FDS를 통해 고객의 몽치거래와 의심거래를 적발하고 있지만 연간 1회다보니 한계가 있었다”면서 “이를 월 단위로 단속하고 은행에서 상품권 판매시 의심거래로 분류한 건에 대해서 이날부터 즉각 확인 조치를 취할 예정”이라고 설명했다.

현재 소진공에서 관련 업무를 하는 1개 팀을 향후 3개팀으로 확대한다.

중기부는 온누리상품권 최대 회전한도 기준을 매년 회전한도 승인 전문가 협의체에서 심의를 통해 결정할 계획이다. 특히 매출 1억원 이상 가맹점에 대해선 6개월마다 매출실적을 확인해 한도에 미치지 못할 경우 하향조정한다는 방침이다.

허위가맹 등록을 막기 위해 가맹신청 점포가 구역 내 실제 영업 점포라는 것을 확인할 수 있도록 하는 임시등록 절차를 도입하고 신청방식도 개편한다.

원 실장은 “가맹점 등록 이후에도 지방중기청을 중심으로 소진공, 시장상인회와 협력해 매달 정기적으로 관할 시장을 돌며 가맹점 등록 요건을 중간 점검하는 등 사후관리를 강화해 나갈 방침”이라고 덧붙였다.

이런 가운데 전국상인연합회는 중기부 대책과 별도로 지난 8일 온누리상품권 부정유통 근절 문화 확산을 위한 자정 선언을 했다. 상인연합회는 전국 17개 지회에 부정유통 감시단을 구성·운영하고, 이달 말까지 전국 개별 시장에도 자체 시장감시단을 뒤 부정유통 신고·현장확인·단속 등을 실시한다는 계획이다.

원 실장은 “현재 부정유통 문제는 종이류 상품권에서 주로 발생하고 있어 향후 카드형 등 디지털 상품권이 늘어나면 대부분 사라질 것으로 보고 있다”면서 “내년엔 지류와 상품권 발행 비율이 3대 7정도다. 이에 앞서 내달 중으로 온누리 상품권 운영 전반에 대한 종합대책을 마련해 추가로 발표하겠다”고 밝혔다. /김승호 기자 bada@metroseoul.co.kr

# “94년 韓 물류 근대화 이끌어... 자긍심 갖자” 기보, 태국에 혁신중소 지원 노하우 전수

CJ대한통운 창립 94주년 행사 장기근속자 350명에 포상 진행



신영수 대표(가운데)가 우수한 성과로 'CJ대한통운 Awards'를 받은 수상자들과 기념촬영을 하고 있다. /CJ대한통운

CJ대한통운이 창립 94주년을 맞았다.

신영수 대표는 창립 행사에서 “급변하는 대내외 환경속에서 변화하고 혁신하지 않으면 생존할 수 없다는 절박함을 가져달라”고 강조했다.

CJ대한통운은 창립 94주년을 맞아 지난 8일 서울 종로 본사에서 기념식을 개최했다고 11일 밝혔다.

기념식에는 신 대표와 경영진, 수상자와 임직원 등 200여명이 참석했다. 특히 이날 행사는 격의없는 소통을 위해 대표이사 기념사 낭독 대신 신 대표가 임직원들과 타운홀 미팅을 가졌다.

신 대표는 이날 임직원들과 가진 타운홀 미팅에서 “CJ대한통운은 지난 94년간 대한민국 물류 근대화를 이끌어온 기업”이라면서 “회사의 주역으로써 자긍심을 갖자”고 말했다.

그러면서 “최근 우리를 둘러싼 경영환경은 급변하고 있으며 변화의 속도가

빠르고 근원적”이라며 “우리의 미래 생존을 고민해야 할 절체절명의 시기”라고 강조했다.

이날 타운홀 미팅에 앞서 40년 근속 1명을 포함해 350명의 장기근속자에 대해 포상을 진행했다. 또 'CJ대한통운 Awards'를 통해 총 6개 부문에서 우수한 성과를 창출한 개인과 조직을 시상했다.

84년 입사한 김석준 지사장은 지난 40여년 간 회사와 물류산업의 발전에 함께 하며 이를 지켜본 산증인으로, 특별휴가와 휴가비 1000만원을 받았다.

올해 CJ대한통운은 첨단 물류기술과 물류컨설팅 역량에 기반해 3자물류 신규수주를 확대했다. G마켓 스타배송을 시작으로 신세계 그룹과의 물류협업도 강화하고 있다. 대규모 플랜트와 전투기 등 특수화물 운송과 배터리, 의약품 물류 등 신성장동력 확보에도 성과를 나타냈다. 미국 물류센터 착공 등 북미 시장 공략에 한층 속도를 내는 한편 동남아와 미국, 일본 역지구 네트워크를 강화하는 등 글로벌 확대에도 힘을 쏟았다. /김승호 기자

부산 본점에서 태국 재무차관 간담회

기술보증기금이 태국에 기술금융 및 혁신중소기업 지원 노하우를 전수한다.

기보는 지난 8일 부산 본점에서 태국 재무부 차관 방문단과 간담회를 열고 태국에 기술금융제도 전수를 확대하기 위해 태국신용보증공사(TCG)와 양해각서(MOU)를 체결했다고 11일 밝혔다.

태국 방문단은 한국의 신용보증제도 연구 및 중소기업 지원제도 정보교환 등을 위해 내방했다.

기보와 TCG는 간담회 개최를 통해 양국의 중소기업 지원정책과 모범사례에 대해 공유하며 지속적인 협력 방안을 모색했다. 이어서 진행된 양해각서 체결식은 태국 재무부 차관, TCG 이사장을 비롯해 총 22명의 방문단이 참석했다.

MOU에 따라 기보는 ▲중소기업 신용보증 및 기술보증 등의 정보 교환 ▲기술평가 방법론 전수 ▲태국 진출 한

국기업을 위한 태국기업과의 네트워킹 및 투자유치 기회 발굴 지원 등 양국의 중소기업 혁신성장 지원을 위해 상호 협력해 나가기로 했다.

또한, 기보는 유관기관 및 국제기구와의 해외협력 우수사례와 기술거래사업·글로벌 기술이전 파트너십에 대한 정보를 교환하고, TCG와의 협력관계를 기반으로 국내 중소기업의 글로벌 진출 기회가 동남아 지역으로도 확대될 수 있도록 노력할 예정이다.

김승호 기보 이사장은 “기보는 2016년과 2017년 기획재정부의 해외 지식공유 프로그램(KSP)을 통해 TCG에 기술평가 및 기술보증제도를 전수했고, 2022년부터 매년 실무자워크숍 개최를 통한 지식 교류로 태국과 긴밀한 네트워크를 구축하고 있다”면서 “이번 양해각서를 통해 기술금융 노하우와 지원제도를 태국에 전수하며 혁신성장을 지원할 수 있도록 더욱 노력하겠다”고 밝혔다. /김승호 기자

# 귀뚜라미, 김장나눔 등 소외계층 봉사

가스안전공사와 18년째 선행

귀뚜라미그룹이 한국가스안전공사와 함께 18년째 따뜻한 선행을 이어가며 지역 사회에 희망을 전하고 있다.

귀뚜라미그룹은 가스안전공사와 '제18회 워밍업 코리아(Warming Up! Korea) 연합 봉사활동'을 진행한다고 11일 밝혔다.

지난 2007년 첫 호흡을 맞춘 뒤 매년

진행하고 있는 워밍업 코리아 연합 봉사활동은 가정용보일러 선도기업인 귀뚜라미보일러와 가스 안전 전문가인 가스안전공사가 지역 소외계층의 따뜻한 겨울나기를 돕는 생활밀착형 사회공헌 프로그램이다.

12일과 13일 두 차례에 걸쳐 진행하는 올해 연합 봉사활동은 양측 임직원 60여 명이 참가해 지역 소외계층을 위한 김장 나눔 활동과 저소득 가정 주거

환경개선 활동을 펼친다.

첫 날에는 김장 물가 급등으로 어려움을 겪는 취약계층 지원을 위해 충북 진천군 덕산읍에서 김장 나눔 활동을 진행한다.

참가자들은 민주평통 진천군협의회, 덕산읍 새마을회 회원들과 함께 미리 준비한 절임배추 300포기에 갖은 양념을 정성껏 버무려 김치를 담근 뒤 밀폐 용기에 포장한다. 완성된 김치는 충북 진천군 소재 한부모가정, 독거노인 등 소외계층 100가구에 전달할 예정이다. /김승호 기자

# 소진공, 업무자동화 범위 10개 추가적용

월간 약 3000시간 절감 효과 기대

소상공인시장진흥공단이 행정업무 효율성 향상을 위해 업무자동화(RPA) 적용 범위를 확대해 10개 업무에 추가 적용한다.

11일 소진공에 따르면 기관은 올해 3월 재가지원사업 소상공인 확인서류 발급, 컨설팅트 지출결의작성 자동화 등 5개 업무에 RPA를 시범 도입한 바 있다.

RPA(Robotic Process Automation)란 사람이 반복적으로 처리해야 하는 규칙적인 업무를 소프트웨어 로봇을 적용해 자동화하는 기술이다.

일례로 지원사업 구비서류 발급, 수당 지급처리, 지출결의 전표처리 등 업무 처리과정에서 발생하는 반복적인 행정작업에 RPA를 적용해 투입 인력과 시간을 줄일 수 있다.

이번에 적용한 업무는 전직장려수당 지급 처리 자동화, 스마트상점 기술보급사업 신청서류 검토 자동화 등으로 월간 약 3000시간의 업무시간 절감 효과를 기대하고 있다.

앞으로 소진공은 내부 의견수렴 및 외부 우수사례 발굴을 통해 RPA를 확대해 업무 전반의 디지털 전환을 빠르게 추진해 갈 계획이다. /김승호 기자